

가정 예배 모범

- 2021_02_07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2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눈앞의 권력이나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누가복음 12장 1-12절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1절)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던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은 빵의 중량이나 내용을 변화시키지 않고 크기만 부풀립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면은 변화시키지 않은 채 외면적인 모습만 가꾸는 바리새인들의 가식적인 종교 행위를 비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가식은 이스라엘 전 사회를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 모두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5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을 아프게 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몸만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생의 고난과 아픔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참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7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실 뿐 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 두려워 할 때, 참된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